

# 군산시 올해 복지정책 다채

### 어린이 생태놀이터 개선·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아동의 권리 증진 및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행복감 증진을 위한 놀이문화 확대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 도시 기반을 확고히 했으며 2019년에도 더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를 풀놀이, 흙놀이, 모험, 체육 등 테마가 있는 생태 놀이터로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놀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행복한 부모학교 운영 활성화 및

환으로 예비부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부모 교육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캠프, 부모 연수, 숲 체험 놀이 등을 추진해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하고 관내 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시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을 보상해 주는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민간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을 월 1만원(1인당)에서 월 1만 5천원(1인당)으로 인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을 신설해 민간 어린이집에는 연 3백만원을 가정 어린이집에는 연 2백만원을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지 개편을 통해 어린이행복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당초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사업을 일원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추진으로 모범적인 아동친화 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에도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 사업을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으며 지난해 11월 준공된 수송근린 공원 내 어린이 맘껏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의 발차, 무료 와이파이존, 청소년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소풍 및 자기권리 확산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반영이라도 하듯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50개 회원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 공무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시, 장례문화 정착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진 장례문화 정착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 올해 장사시설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사업비 96억 중 국비 35억 도비 7억 4천 만원을 확보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추모4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군산시 추모4관 신축사업은 승화원 인근부지 7,800㎡에 건축 연면적 3,300㎡(지상 4층), 봉안실(안치단 18,000기), 유족 편의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으며, 오는 2022년에는 화장률이 9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현실에 맞는 군산시 장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봉안단 신축, 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공설묘지를 공원형 가족 납골묘원으로 재개발하여 아름답고 평안한 장례문화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관리용이,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전국 평균 화장률은 지난 1994년 20.5%에서 2005년 52.6%로 처음 50%를 넘어선 이후 2015년 70%를 넘어선 후 2015년은 선진국 수준인 80%선을 돌파하며 매년 2%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청년도시' 조성 속도

익산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인구의 유출 방지와 활기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올해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청년과 청년활동가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책의 기본 방향

과 추진 목표를 설정해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또 청년들의 자선형성을 통한 자선감 회복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66명을 대상으로 일일급여를 지급하면 동일금액을 시에서 매칭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을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드림카드 사업도

병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1인당 3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대상은 만 18세이상 39세 미만 미취업자 333명이다. 3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희망네트워크 구성·운영과 의견수렴·정책 건의 등을 위한 청년 설치지원사업도 펼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해 다양한 시책 추진에 활용한다. 문화예술의거리 내에 문화·소통 공간도 조성한다.

이 공간에서는 청년들이 문화·소통

을 통해 구인·구직정보를 공유하고 시에서는 기업현황 등 일자리 관련 정보를 알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게 된다.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정착 유도와 시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구현으로 젊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익산고용지청, 설 명절 체불 예방 집중 지도활동

고용노동부 산하 익산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 체불예방 집중 지도활동을 전개한다. 체불예방 활동은 14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익산고용지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 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 융자와 함께 재직 중인 임금체불 노동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고용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고용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김제 지역 임금체불 발생액은 107억원(체불 노동자는 2387명)이었으며 이 중 83억원(77%)이 청산됐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간여행축제, 열린 축제 추진 행정역량 집중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2019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체험형·지립형 관광축제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근대문화유산 도시인 군산에서 '근대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이색적인 모티브로 시작된 거리형 축제로 올해로 7화제를 맞는 지역행사이다. 축제가 진행되는 주요 지역인 군산시간여행마을이 2017년 '한국관광의 별', 2019~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2015년부터 3회 연속 선정돼 전국의 많은 축제 관람객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매해 관람객 유치 성과와 축제 콘텐츠 부분의 차별화로 각광받은 시간여행축제는 올해에는 전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시민 공모를 통해 준비할 예정이며, 민선7기의 주요 기조인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준비해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시간여행축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축제 콘텐츠 등을 보완하고, 공연과 볼거리, 체험거리 등 긍정적인 평가 부분은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완성도 높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실업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활력과 자긍심을 불어넣고 시간여행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머물고 싶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군산이 되도록 제7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수협은 어업인의 안락과 풍어 및 수산업 활성화를 기원하는 초매식 개최했다.

## 군산시수협, 수산업 활성화 기원 초매식 개최

군산시수협(조합장 김광철)은 14일 해망동 위판장에서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풍어 및 수산업 활성화를 기원하는 2019년 초매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철 조합장과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수협 임직원 및 유관기관, 어업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김광철 조합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업을 위해 험한 파도와 바다를 상대로 맞서 싸우며 고생하시는 우리 어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올해에는 모든 어

업인들의 안전과 풍어를 간절히 소원 하며 2019년도에도 적정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수협 관계자는 "수산물의 적정어가형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선유도위판장 개장, 비응도위판장 현대화시설 사업, 김 가공 공장 건립 추진,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 이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올 한해는 어가유지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군산시는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까지 현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선호하는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1세~만 18세인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이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

까지 지원되고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할 시 연간 최대 12만 6000원(월 1만 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키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